

[▶ 인쇄하기](#)
[☒ 찜하기](#)

국역 '추안급국안' 90권 간행

2014-09-27 04:19



조선 후기 정치·사회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범죄 수사 기록, '추안 급 국안'이 10년에 걸친 번역 작업 끝에 우리말 책 90권으로 나왔습니다.

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완역한 '추안 급 국안'은 선조 34년부터 고종 29년까지 조선 후기 300년 동안 일어난 변란과 역모 등 279건의 사건에 연루된 중죄인을 심문한 기록입니다.

'추안 급 국안'은 반란과 역모, 박해에 희생됐던 사건 가담자 만 2000여 명의 진술을 그대로 적고 있어 당시 사건과 상황을 복원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

784만 자의 방대한 한문 기록을 번역한 '추안 급 국안'은 조선왕조 실록을 제외하면, 가장 방대한 양의 역사 번역서입니다.

조영권 [cykwon@ytn.co.kr]

- Copyrights © YTN & YTN PLUS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